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5. 31.(금) / 총 8매(본문 4, 참고 4)
담당부서	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	담당자	• 과장 진승하, 사무관 김정수(☎044-215-4410, 4413)
	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정재웅(☎044-201-4204, 4189)
	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	담당자	• 과장 임택진, 사무관 강윤숙(☎044-200-2630, 2636)
	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	담당자	• 처장 김창규, 팀장 신동익(☎032-741-5082, 5390)
보 도 일 시		2019년 5월 3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1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인천국제공항,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

- 화장품 · 술 살 수 있고 담배는 불가...1터미널 2곳, 2터미널 1곳 등 3개소 -

- 기획재정부(장관 홍남기),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국무조정실(실장 노형욱),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구본환)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5월 31일(금)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했다.
 -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, 김영문 관세청장,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다.
- 그간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되었으나,
 -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,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었다.
 -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 “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”며 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’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(‘18.8.13)하였고,

-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(8월),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(9월), 관세법 개정(12월),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(4월)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되었다.

□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2개소,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.

○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·서편 2개 매장(총 380㎡, 190㎡×2개)에서 중소사업자인 (주)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할 예정이고,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(326㎡)이 들어서고, 중견사업자인 (주)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된다.

○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, 향수·화장품·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·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

* 입국심사 후 매장 이동 동선 ☞ 참고1

□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했던 기존과는 달리, 앞으로는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.

* 여론조사('18년 7~8월) 결과, 국민의 81.2%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

- 아울러,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.
 - 운영사업자는 중소기업의 참여만 허용하였고,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하여 제공하였다.
 - 또한 매장 면적의 20% 이상은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하여,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 할 예정이며,
 - 연간 약 200억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.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“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”라고 평가하면서,
-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(약 347억원)되고,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(직·간접 포함)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.
 - 또한, “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·검역·출입국·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, “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, 정부는 6월 중으로 「서비스산업 혁신전략」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·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면서,
 - “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안정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, 운영사업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< 입국장 면세점 해외 운영 사례 >

- ◆ 전 세계 88개국*(333개 공항) 중 73개국(149개 공항)에서 여행객 편의 제공, 해외소비 국내전환 등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 중
 - * 국제공항협회 주관 ASQ(Airport Service Quality)평가 참가국 기준
- 특히, 일본은 '17.4월 최초 도입하였고,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
 - * 일본 : '17.4월 재무성 지침으로 허용(현재 4개 공항에서 운영)
 - ** 중국 : '08년 최초 허용(베이징·상해 2개) → '16년 19개 추가 허용

- 향후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및 평가(6개월) 후 전국의 주요 공항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재정부 김경수 사무관(☎ 044-215-4413),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정재웅 사무관(☎ 044-201-4189),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강윤숙 사무관(☎ 044-200-26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입국장 면세점 위치 (입국심사 후 매장 이동 동선)

□ 입국장 면세점 위치



□ 입국심사 후 매장 이동 동선

구분	제1여객터미널	제2여객터미널
2층 입국장 도착		
1층으로 이동		
입국장 면세점 도착		

참고2

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진

□ 제1여객터미널 매장(운영사업자 : 에스엠면세점)



□ 제2여객터미널 매장(운영사업자 : 엔타스듀티프리)

